

일본 비즈니스 관련 어휘 습득 연구

- 한국인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

김 선 영*

(e-mail : musuko-min@hanmail.net)

< 목 차 >

- | | |
|---------------------|-----------------------|
| 1. 서론 | 4.2.2 な형용사의 습득 양상 |
| 2. 선행연구 | 4.2.3 い형용사의 습득 양상 |
| 3. 연구방법 및 조사개요 | 4.2.4 동사의 습득 양상 |
| 4. 조사결과 및 고찰 | 4.3 어종별 습득 양상 |
| 4.1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습득 | 4.3.1 명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 |
| 4.2 품사별 습득 양상 | 4.3.2 な형용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 |
| 4.2.1 명사의 습득 양상 | 5. 결과 |

キーワード : ビジネス語彙(Business vocabulary), 韓国人日本語学習者(Korean Japanese learners), 品詞別(Part of speech), 語種別(Word type), 習得様相(Learning mode)

1. 서론

일본기업의 외국인 채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 현지의 구인난으로 관광 서비스분야 뿐만 아니라 IT, 기계·전자기기 설계, 사회복지, 요양치료, 충무·인사,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당연히 일본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일본기업 채용담당 관계자들은 일본어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일본어 회화 실력, 비즈니스 일본어 활용 능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분야의 어휘의 습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장원재(2005:25-4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예전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로 어휘교육 연구는 기본어휘뿐

* 영남외국어대학, 일본어강사, 일본어교육

만 아니라 학습자의 니즈에 맞추어 다양한 어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기업 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휘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인일본어학습자들의 비즈니스 관련 어휘 습득 양상을 고찰하여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일본어 어휘 연구는 크게 중·고등학교 교과서 어휘 분석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의미 분석 연구가 꾸준히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학습자의 니즈의 요구에 맞는 어휘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학습자들의 사용 어휘 연구 및 전문분야의 기술어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학습자들의 사용어휘 연구로는 김시은(2016)(2017)을 들 수 있다. 김시은(2016:161-175)은 한국인 일본어 상급학습자의 작문에서 사용어휘를 조사하여 일본어모어화자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어휘 사용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에 필요한 어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시은(2017:23-39)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상급학습자의 의견문 사용 어휘를 일본어모어화자와 품사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사용의 특징을 고찰하여 학습자의 논리적인 문장 작성을 위한 어휘 사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문분야의 기술어 어휘 분석으로는 威美燕(2005), 강창임(2008), 総田はるみ(2013), 이윤정(2018)등이 있다. 먼저 威美燕(2005:277-285)은 기술 분야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 작성을 목적으로 교재 작성에 필요한 일본어 기본 어휘선정을 위한 연구를 행하였다. 기술 분야 관련 용어와 일본어능력시험 1급, 2급 어휘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 분야 어휘를 제시하였다. 강창임(2008:1-24)은 일본에서 발행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소개 여행 잡지를 대상으로 한국 에스테틱을 소개하는 잡지 기사를 추출하여 관련 어휘를 조사, 분석하여 에스테틱 분야의 어휘적 특성과 그 사용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総田はるみ(2013:33-42)는 관광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작성을 목적으로 관광학 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실시, 그 특징을 고찰하

고 있다. 이윤정(2018:155-180)은 일본경제 전문 뉴스 『産経ニュース』의 경제란 IT 분야 기사 1개월 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IT 관련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전문 분야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으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어휘 습득연구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문분야의 어휘 중 하나인 일본 비즈니스 관련 어휘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어휘 습득 양상을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앞으로의 학습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조사개요

본고는 일본해외취업 준비생들의 가장 기본 어휘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련 어휘 조사를 한 김선영(2018)¹⁾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인일본어학습자들이 학습레벨에 따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어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김선영(2018)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품사별, 어종별 빈출어휘를 선별하여 어휘 테스트 문항을 만들었다. 문항선별은 각 품사별 커버율²⁾ 약 70% 범위 내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다음 표는 김선영(2018)의 어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일본어 어휘의 각 품사별 빈출순위에 따른 어휘수와 커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1>비즈니스 일본어 어휘의 빈출순위에 따른 어휘수와 커버율

	개별어수	전체어수	빈도순위	누적어수	커버율
명사	3,681	35,326	507위	24,743	70.04%
나형용사	221	1,702	34위	1,210	71.09%
이형용사	86	1,040	20위	752	72.31%
동사	844	13,518	50위	9,767	72.25%

1) 김선영(2018:17-40)에서는 인터넷 뉴스 「NHK NEWS WEB」 비즈니스 분야의 기사 1개월치(2018.02.17.-03.16)의 총 337개 기사의 어휘를 분석하여 품사별(명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 어종별(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빈출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2) 커버율은 신문의 비즈니스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휘를 습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명사 빈출순위 507위까지 어휘는 전체어휘의 70.04%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507위까지의 어휘를 습득하면 신문의 비즈니스 기사의 약 70.04%의 명사 어휘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선영(2018)에서는 명사가 개별어수 3,681개, 전체어수 35,326개로 가장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동사가 개별어수 844개, 전체어수가 13,518개, な형용사가 개별어수 221개, 전체어수 1,702개, い형용사가 개별어수 86개, 전체어수 1,040개를 나타내었다. 이 중 각 품사별로 전체 커버율 70%이상의 어휘를 선정해 본 결과 명사는 507위, な형용사는 34위, い형용사는 20위, 동사는 50위까지의 어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어휘 중 무작위로 어휘를 선출, 본 테스트 항목을 작성하였다. 다음은 품사별, 어종별 문항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2>테스트 각 항목별 문항수(총 문항수: 100문항)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혼종어	계
명사	37	6	5	2	50
나형용사	10	4	1	0	15
이형용사	10	0	0	0	10
동사	25	0	0	0	25
계	82	10	6	2	100

테스트는 각 품사별로 명사 50문항, な형용사 15문항, い형용사 10문항, 동사 25문항으로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사와 な형용사는 어종별 습득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세분화하였다. 다음은 테스트의 예이다.

I. 다음 단어의 ふりがな와 그 뜻을 쓰시오.

<예시> 会社 かいしゃ 회사

	단어	ふりがな	뜻
1	消費		
2	措置		
3	鉄鋼		

본 조사는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일본어관련 전공 학생들과 일본취업 준비반 학생들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 한국 국적이 아닌 학생 2명과 앙케트 미완성 1명을 제외한 1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본어 학습레벨은 JLPT, JPT, 기타 자격증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

다. 조사대상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모두 JLPT와 JPT를 기입하였으며, JPT 점수를 기입한 경우는 YBM 시사 어학시험(JPT³⁾)에서 제공하는 新JLPT와 JPT의 상관관계를 참조로 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3>조사 분석 대상자의 정보

	N1	N2	N3이하	자격증無	계
전체	35	29	17	26	107
남	31	18	11	11	71
여	4	11	6	15	36
전공	23	17	12	23	75
부/복수전공	2	2	0	3	7
타전공	10	10	5	0	25
일본어학습력(평균)	3년8개월	2년5개월2주	1년8개월2주	1년7개월	2년6개월2주
일본체류기간(평균)	4개월	1개월	2개월	3주	약2개월

4. 조사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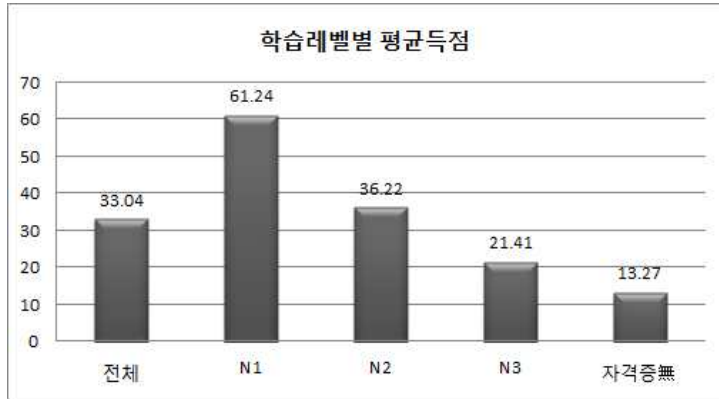
4.1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습득

먼저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비즈니스 어휘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비즈니스 어휘 테스트 평균 득점치를 나타낸 표와 그림이다.

<표4>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비즈니스 어휘 테스트 평균득점(100점 만점)

	전체	N1	N2	N3	자격증無
평균	33.04	61.24	36.22	21.41	13.27
최고치	96.5	96.5	85	48	30.5
최저치	2	12	8.5	7	2
표준편차	7.56	25.69	18.76	12.05	8.59
피험자수	107	35	29	17	26

3) http://exam.ybmnet.co.kr/jpt/introduction/introduction_05.asp(검색일:2018.10.01)



<그림1> 학습자의 비즈니스 어휘 학습레벨별 평균득점(100점 만점)

전체 평균 득점은 33.04점으로 낮은 득점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N1학습자의 평균득점은 61.24점, N2학습자는 36.22점, N3학습자는 21.41, 자격증無학습자는 13.27점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낮은 득점치를 나타내고 있다. 학습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휘의 습득도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일본해외취업 시 요구하는 N1, N2 자격증 소지자인 N1, N2학습자의 득점치도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N2학습자는 평균 득점치가 36.22점으로 정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본어휘뿐만 아니라 특정분야의 어휘 습득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들 비즈니스 어휘의 습득이 빠르게 진행되는 학습레벨이 언제인지, 이들 학습레벨 간에 전체적으로 득점치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고찰하기 위해 t-검정⁴⁾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t-검정 분석결과이다.

4) 石村眞夫・デズモンド・アレン(1997:167)에 의하면 t-검정은 대응되는 두 집단의 평균차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이다. 본고의 t-검정은 Excel 2007을 이용하며 검증하였다.

<표5>학습레벨에 따른 t-검정

t-검정: 이분산 가정 두 집단	N1	N2
평균	61.23714286	36.22413793
분산	659.7594622	352.0461823
관측수	35	29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61	
t 통계량	4.493208014	
P(T<=t) 단측 검정	1.59489E-05	
t 기각치 단측 검정	1.670219484	
P(T<=t) 양측 검정	3.18979E-05	
t 기각치 양측 검정	1.999623585	

t-검정: 이분산 가정 두 집단	N2	N3
평균	36.22413793	21.41176471
분산	352.0461823	145.1636029
관측수	29	17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44	
t 통계량	3.257350638	
P(T<=t) 단측 검정	0.001084915	
t 기각치 단측 검정	1.680229977	
P(T<=t) 양측 검정	0.002169831	
t 기각치 양측 검정	2.015367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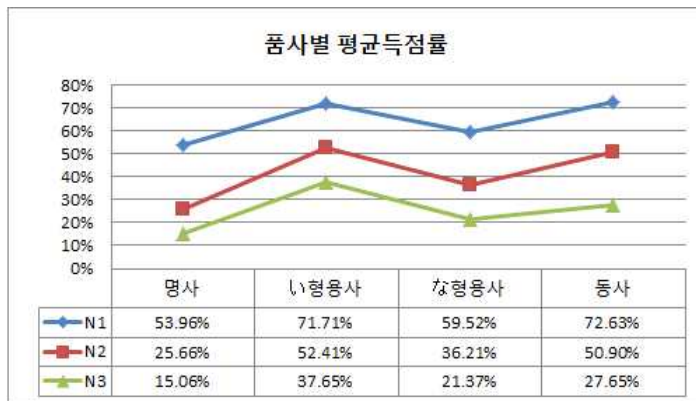
t-검정: 이분산 가정 두 집단	N3	자격증無
평균	21.41176471	13.26923077
분산	145.1636029	73.80461538
관측수	17	26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27	
t 통계량	2.413975313	
P(T<=t) 단측 검정	0.011416161	
t 기각치 단측 검정	1.703288446	
P(T<=t) 양측 검정	0.022832321	
t 기각치 양측 검정	2.051830516	

t-검정은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양 그룹간의 유의차가 인정된다. 검증 결과, N1과 N2학습자간 t통계량이 4.493208014이고 P(T<=t) 양측 검정 값이 3.18979E-05이다. P-값에 의한 검증이 유의확률(P-값=3.18979E-05)<유의수준:0.05이므로 양 그룹간의 유의차가 인정된다. N2과 N3 학습자 간 t통계량이 3.257350638이고 P(T<=t) 양측 검정 값이 0.002169831이며 P-값에 의한 검증이 유의확률(P-값=0.002169831)<유의수준:0.05이므로 양 그룹간의 유의차가 인정된다. 또한 N3와 자격증無 학습자 간 t통계량이 2.413975313이고 P(T<=t) 양측 검정 값이 0.022832321이며 P-값에 의한 검증이 유의확률(P-값=0.022832321)<유의수준:0.05이므로 양 그룹간의 유의차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어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비즈니스 일본어 어휘의 습득도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전반적인 득점률이 낮아 비즈니스 어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품사별 습득 양상

다음은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품사별 어휘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품사별 어휘 습득 양상 고찰시 자격증無학습자는 제외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격증無학습자는 평균득점이 13.27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즈니스 어휘 습득의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격증無 학습자 26명을 제외한 81명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품사별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득점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2>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품사별 득점률

<그림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품사는 일본어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습득도 진행되고 있다. N3에서 N2학습레벨 사이에는 10%대의 득점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N2에서 N1학습레벨 사이에는 20%이상의 득점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즉 N3학습레벨에서 N2학습레벨 보다는 N2에서 N1학습레벨로 진행됨에 따라 습득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품사별로 보면 특히 동사의 습득이 일본어 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빠르게 습득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선영(2018:32)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현빈도수가 높은 동사 중 수나 양 등 경제와 관련된 동사의 사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지만 같은 동사의 반복이 많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어휘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명사의 경우는 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조금씩 습득이 진행되고 있으나 학습레벨별로 다른 품사에 비해 가장 낮은 득점률을 보이고 있어 습득하기 어려운 품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선영(2018:25-26)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명사의 경우 경제와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형용사의 경우 N3학습레벨에서도 37.65%의 득점률을 보여 다른 품사에 비해 높은 편이며 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습득이 진행되어 N1레벨에서는 71.71%의 높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위빈도순위 20위까지의 어휘만 습득하더라도 비즈니스 관련 이형용사 어휘 72.31%를 커버할 수 있으므로 사용어휘수가 많지 않으며 같은 어휘의 반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な형용사는 이형용사나 동사에 비해 낮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명사보다는 약간 높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품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어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な형용사의 습득도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N1학습레벨에 이르러서도 정답률 60%미만을 나타내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비즈니스 관련 어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명사의 어휘에 중점을 두어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1 명사의 습득 양상

명사의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상세한 습득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본고의 테스트의 명사항목 50개 문항 중 학습레벨에 따른 정답률

상위 10위 이내, 하위 10위 이내의 어휘를 나타낸 표이다.

<표6>명사의 학습레벨별 상위 10위와 하위 10위 정답률⁵⁾

순위별	명사	N1정답률	명사	N2정답률	명사	N3정답률
1위	金利	90.00%	金利	75.86%	金利	71.18%
2위	消費	84.29%	消費	62.07%	発動	58.82%
3위	処分	75.71%	発動	60.34%	消費	35.29%
4위	発動	75.71%	物件	50.00%	物件	35.29%
5위	株式	74.29%	株式	48.28%	割合	32.35%
6위	シフト	74.29%	採用	48.28%	利益	26.47%
7위	利益	72.86%	提携	44.83%	株式	23.53%
8위	採用	71.43%	処分	44.83%	指数	23.53%
9위	ローン	71.43%	メーカー	44.83%	提携	23.53%
10위	メーカー	68.57%	見方	39.66%	ローン	23.53%
40위	離脱	41.43%	措置	6.90%	見通し	5.88%
41위	月額	40.00%	保護	6.90%	メーカー	5.88%
42위	削減	38.57%	顧客	6.90%	ツイート	5.88%
43위	顧客	38.57%	署名	6.90%	出来高	5.88%
44위	掲載	35.71%	掲載	5.17%	交渉	2.94%
45위	為替	30.00%	加盟	5.17%	掲載	2.94%
46위	鉄鋼	28.57%	出来高	5.17%	最大手	2.94%
47위	撤廃	27.14%	鉄鋼	3.45%	鉄鋼	0.00%
48위	措置	25.71%	離脱	3.45%	売却	0.00%
49위	出来高	17.14%	撤廃	1.72%	撤廃	0.00%
50위	最大手	14.29%	最大手	1.72%	為替	0.00%

명사 중 정답률이 높은 어휘는 「金利」「消費」「発動」를 들 수 있다. 그 중 「金利」는 N1, N2, N3 학습레벨 모두 정답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N1 학습레벨에서는 정답률 90.00%, N2, N3 학습레벨에서도 각 75.86%, 71.18%의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N3 학습단계에서도 습득이 쉬운 어휘라고 할 수 있

5) 여기에서 정답률은 각 학습레벨별 조사대상자 중 정답을 맞춘 학습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N1 학습자 35명 중 「金利」 어휘를 맞춘 정답자가 31.5명이기 때문에 N1의 「金利」 항목의 정답률은 90.00%가 된다.

다. 이에 반해, 「最大手」 「出来高」 「撤廃」 「鉄鋼」 등은 N1, N2, N3 학습레벨 모두 하위 5위 안에 속하는 어휘이다. 특히 「出来高」 「最大手」 는 N1 학습레벨에서도 각 17.14%, 14.29%를 나타내어 10%대의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N2, N3학습레벨에서는 5%미만의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이들 어휘는 습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위 5위 이내의 어휘들은 경제관련 등의 전문용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な형용사의 습득 양상

나형용사의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상세한 습득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나형용사 항목의 학습레벨에 따른 정답률을 나타낸 표이다.

<표7>나형용사의 학습레벨별 정답률

순위별	나형용사	N1정답률	나형용사	N2정답률	나형용사	N3정답률
1위	自由だ	94.29%	自由だ	79.31%	スマートだ	78.35%
2위	重要だ	87.14%	スマートだ	79.31%	自由だ	73.53%
3위	完全だ	85.71%	重要だ	63.79%	重要だ	52.94%
4위	明確だ	85.71%	完全だ	60.34%	完全だ	47.06%
5위	新ただ	84.29%	明確だ	60.34%	明確だ	26.47%
6위	スマートだ	77.14%	深刻だ	36.21%	深刻だ	14.71%
7위	深刻だ	74.29%	慎重だ	34.48%	柔軟だ	14.71%
8위	小幅だ	71.43%	新ただ	31.03%	慎重だ	11.76%
9위	慎重だ	55.71%	緊急だ	34.48%	緊急だ	11.76%
10위	緊急だ	52.86%	不具合だ	17.24%	新ただ	5.88%
11위	柔軟だ	40.00%	遺憾だ	15.52%	過剰だ	2.94%
12위	遺憾だ	37.14%	小幅だ	13.79%	小幅だ	2.94%
13위	不具合だ	37.14%	柔軟だ	12.07%	不具合だ	2.94%
14위	過剰だ	28.57%	過剰だ	5.17%	遺憾だ	0.00%
15위	緩やかだ	12.86%	緩やかだ	0.00%	緩やかだ	0.00%

나형용사 어휘 중 「自由だ」 「重要だ」 「完全だ」 「明確だ」 는 N1, N2, N3 학습레벨에서 모두 정답률 상위 5위 안에 드는 어휘로 N1학습레벨에서는 모두 85%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N2학습레벨에서도 60%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N2 전체 평균 득점인 36.22점에 비해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N3학습레벨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スマートだ」「自由だ」는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スマートだ」의 경우 외래어로 N1, N2, N3학습레벨 모두 70% 이상의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N2학습자 정답률은 79.31%로 N1학습자 77.14% 보다 더 높으며, N3학습자 78.35%로 그다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1학습자의 답안을 보면 「スマートだ」의 의미로 ‘날씬하다’의 답안이 눈에 띄어 「スマートだ」의 원래의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過剰だ」「緩やかだ」는 N1, N2, N3학습레벨 모두 하위 1위, 2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N3학습레벨에서는 두 어휘 모두 정답률 0%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緩やかだ」는 N2학습레벨에서도 정답률 0%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N1, N2학습자는 「穏やかだ(おだやかだ)」와 혼동하는 오답이 많았다.

4.2.3 い형용사의 습득 양상

이형용사의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상세한 습득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이형용사 항목의 학습레벨에 따른 정답률을 나타낸 표이다.

<표8>이형용사의 학습레벨별 정답률

순위별	이형용사	N1정답률	이형용사	N2정답률	이형용사	N3정답률
1위	高い	97.14%	高い	96.55%	高い	97.06%
2위	低い	88.57%	深い	75.86%	若い	67.65%
3위	深い	80.00%	若い	63.79%	細かい	52.94%
4위	若い	72.86%	細かい	62.07%	深い	44.12%
5위	詳しい	70.00%	低い	60.34%	低い	38.24%
6위	細かい	70.00%	詳しい	50.00%	厳しい	20.59%
7위	激しい	68.57%	厳しい	43.10%	幅広い	20.59%
8위	幅広い	67.14%	激しい	27.59%	詳しい	20.59%
9위	厳しい	65.71%	幅広い	25.86%	激しい	11.76%
10위	根強い	38.57%	根強い	18.97%	根強い	2.94%

이형용사 어휘 중 「高い」는 N1, N2, N3학습레벨에서 모두 95%이상의 정답률을 보여 상위 1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激しい」「幅広い」「厳しい」「根

強い」는 N1, N2, N3학습레벨에서 하위 4위 이내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根強い」는 각 38.57%, 18.97%, 2.94%의 정답률을 나타내어 학습자들에게 습득하기 어려운 어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い형용사의 어휘는 전체적으로 다른 품사에 비해 정답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2.4 동사의 습득 양상

동사의 일본어 학습레벨에 따른 상세한 습득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동사 항목의 학습레벨에 따른 정답률을 나타낸 표이다.

<표9>동사의 학습레벨별 정답률

순위별	동사	N1정답률	동사	N2정답률	동사	N3정답률
1위	増える	88.57%	合わせる	89.66%	働く	73.53%
2위	向ける	88.57%	上がる	84.48%	上がる	70.59%
3위	上がる	88.57%	働く	79.31%	増える	52.94%
4위	比べる	87.14%	比べる	75.86%	続ける	52.94%
5위	働く	87.14%	続ける	68.97%	合わせる	50.00%
6위	広がる	85.71%	広がる	65.52%	広がる	38.24%
7위	合わせる	84.29%	増える	65.52%	比べる	35.29%
8위	行う	81.43%	向ける	65.52%	行う	32.35%
9위	続ける	81.43%	進める	63.79%	進める	32.35%
10위	高まる	81.43%	行う	62.07%	示す	29.41%
15위	超える	71.43%	含める	39.66%	訪れる	20.59%
16위	上回る	70.00%	含む	39.66%	超える	17.65%
17위	示す	67.14%	述べる	37.93%	含める	14.71%
18위	述べる	67.14%	示す	36.21%	含む	11.76%
19위	含める	65.71%	目指す	36.21%	巡る	11.76%
20위	含む	65.71%	上回る	34.48%	認める	8.82%
21위	訪れる	62.86%	訪れる	32.76%	述べる	5.88%
22위	相次ぐ	57.14%	巡る	24.14%	課する	5.88%
23위	巡る	57.14%	繋がる	22.41%	繋がる	2.94%
24위	繋がる	44.29%	相次ぐ	18.97%	上回る	0.00%
25위	課する	12.86%	課する	5.17%	相次ぐ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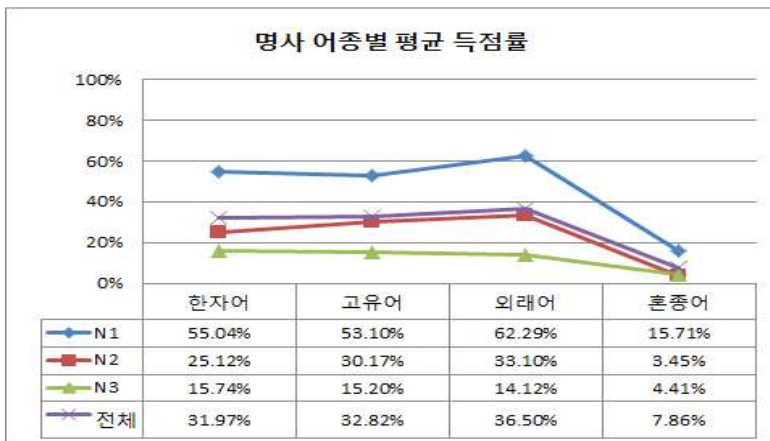
동사 중 「上がる」「働く」은 N1, N2, N3 학습레벨 모두 정답률 상위 5위 이내의 어휘로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다른 품사에 비해 상위 10위 이내의 어휘의 정답률이 높아 N1 학습레벨에서는 상위 10위 이내의 어휘 모두 80% 이상, N2 학습레벨에서는 6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학습레벨의 정답률 상위 10위 이내의 어휘가 각 순위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같은 동사의 어휘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어휘는 대체로 습득하기 쉬운 어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답률 하위 5위 이내의 어휘를 보면, 「課する」「繋がる」「相次ぐ」 등의 어휘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課する」은 N1 학습레벨에서도 정답률 12.86%를 보여 습득하기 어려운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동사는 전체적으로 다른 품사에 비해 N1 학습레벨에 이르러서는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어종별 습득 양상

본장에서는 학습레벨에 따른 어종별 습득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종별 습득양상은 동사와 이형용사는 모두 고유어로 구성되어 있어 본 고찰에서는 제외하며 명사와 な형용사만을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

4.3.1 명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

다음은 학습레벨에 따른 명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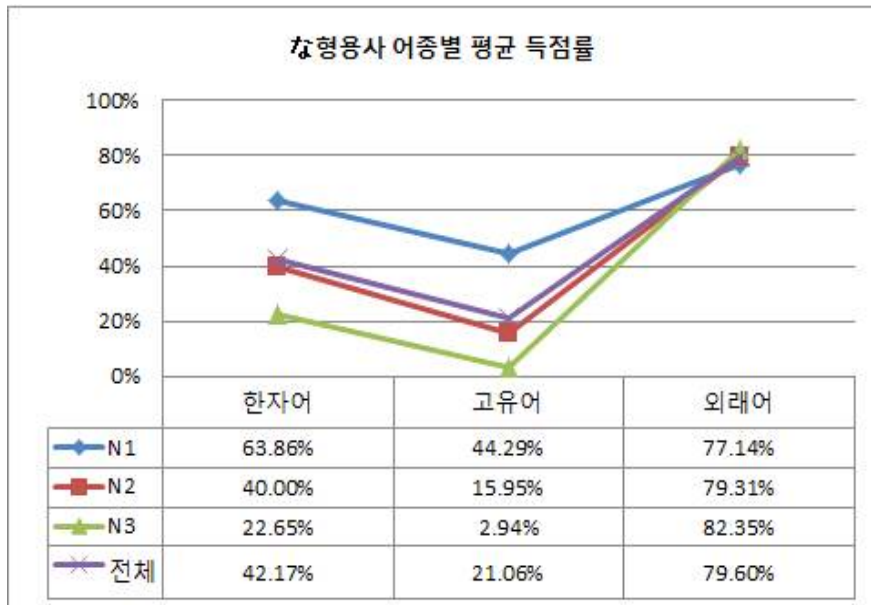


<그림3>명사 어종별 학습레벨에 따른 평균 득점률

먼저 학습자 전체의 어종별 평균 득점률을 살펴보면 외래어가 36.50%로 가장 높고 이어 고유어 32.82%, 한자어 31.97%로 비슷한 득점률을 보였다. 혼종어의 득점률은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어종별로는 학습자들에게 혼종어의 습득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명사는 서서히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외래어의 습득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N3학습레벨에서는 득점률이 14.12%였는데 N1학습레벨에서는 62.29%로 다른 어종에 비해 높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우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혼종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N1학습레벨이 되어도 15.71%의 낮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테스트 문항 중 3개가 혼종어에 해당되는데 이들 중 두 어휘 즉 「手不足」 「出来高」 「最大手」 중 「出来高」 「最大手」의 오답률이 높았다. 즉 이는 일반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전문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답률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4.3.2 ♀형용사 어종별 습득 양상

다음은 학습레벨에 따른 ♀형용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4>♀형용사의 어종별 학습레벨에 따른 평균 득점률

먼저 학습자 전체의 어종별 평균 득점률을 살펴보면 외래어가 79.60%로 가장 높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한자어가 42.17%, 고유어가 21.06%의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어 외래어의 습득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어는 학습레벨에 상관없이 높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N3, N2, N1 학습레벨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는 이미 N3에서 습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な형용사의 외래어는 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초어휘로 비즈니스 신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우 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이들 어휘의 습득도 진행되고 있으나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득점률이 높았다. 특히 な형용사 고유어 문항인 「緩やかだ」「小幅だ」「不具合だ」의 오답률이 높았다. 즉 な형용사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과

본고에서는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비즈니스 일본어 어휘 습득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비즈니스 일본어 어휘에 관한 테스트 결과 평균 득점치가 33.04점(100점 만점)으로 낮은 득점치를 나타내어 한국인일본어학습자들에게 있어 비즈니스 관련 일본어 어휘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품사별 습득 양상을 보면, 명사, い형용사, な형용사, 동사 중 N1, N2, N3 학습자 전체의 득점률은 い형용사가 53.93%로 가장 정답률이 높으며 이어 동사가 50.39%, な형용사가 39.03%, 명사가 31.56%로 명사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일본어 학습레벨별로 살펴보면, 정답률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N3, N2 학습레벨에서는 い형용사가 가장 정답률이 높으며 이어 동사, な형용사, 명사 순으로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N1 학습레벨에서는 동사가 72.63%로 가장 정답률이 높으며 이어 い형용사가 71.71%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な형용사, 명사 순으로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N1 학습레벨에서는 い형용사와 동사는 정답률이 70%이상으로 보이고 있는데 반해, な형용사와 명사는 50%대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N1 학습레벨에 이르러서도 비즈니스 일본어

어휘 중 특히 명사와 な형용사의 어휘의 습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명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을 보면, 학습자 전체의 어종별 평균 득점률은 외래어가 36.50%로 가장 높고 이어 고유어 32.82%, 한자어 31.97%로 비슷한 득점률을 보였다. 혼종어의 득점률은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어종별로는 학습자들에게 혼종어의 습득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 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명사는 서서히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외래어의 습득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우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습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혼종어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낮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N1학습레벨이 되어도 15.71%의 낮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な형용사의 어종별 습득 양상을 보면, 학습자 전체의 어종별 평균 득점률은 외래어가 79.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한자어가 42.17%, 고유어가 21.06%로 외래어의 습득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래어는 학습레벨에 상관없이 높은 득점률을 나타내고 있다. な형용사의 외래어는 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초어휘로 비즈니스 신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우 학습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이들 어휘의 습득도 진행되고 있으나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득점률이 높았다. 즉 な형용사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습득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비즈니스 관련 어휘의 습득은 일본어학습이 진행되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해외취업 등이 증가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비즈니스 일본어 어휘의 학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戚美燕(2005) 「기술 분야 일본어 교육을 위한 기본어휘 연구」『동일어문연구』20, 동일어문학회, pp.277-285.
강창임(2008) 「일본 여행 잡지에 나타난 한국 에스데틱의 어휘에 관한 연구」『일본어문학』43, 일본어문학회, pp.1-24.

- 김선영(2018) 「일본 인터넷 신문 어휘 분석-비즈니스 기사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 81집, 일본어문학회, pp.17-40.
- 김시은(2016) 「한국인 일본어 상급학습자의 작문 사용어휘 연구-모어화자와의 어종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77권,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 161-175.
- _____ (2017) 「한국인 일본어 상급학습자의 의견문 사용어휘 연구-모어화자와 품사 비료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제41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23-39.
- 이윤정(2018) 「일본 IT뉴스 어휘 분석 연구」 『일본어문학』 80집, 일본어문학회, pp. 155-180.
- 장원재(2005) 「한국에서의 일본어 어휘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어일문학연구』 52권1호, 한국일본어문학회, pp.25-41.

石村貞夫・デズモンド・アレン(1997) 『すぐわかる統計用語』 東京図書、p.167.

総田はるみ(2013) 「観光学における日本語語彙の分類-学部留学生のために-」 『横浜商大論集』 46(2)、横浜商科大学学術研究会、pp.33-42.

YBM 시사 어학시험 JLPT http://exam.ybmnet.co.kr/jpt/introduction/introduction_05.asp
(검색일:2018.10.01)

논문 투고 일자 : 2018. 12. 28.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要旨>

日本ビジネス関連語彙の習得研究
-韓国語学習者を対象に-

金宣伶

本稿では日本ビジネス関連語彙の使用実態を基に、韓国語学習者の学習レベルによる語彙の習得様相を考察した。その結果は次のとおりである。

一つ目は、韓国語学習者は学習レベルが上がるにつれ、ビジネス語彙の習得も少しずつ進んでいるが、学習者全体の得点値が低く、ビジネス関連語彙の学習が必要だと言える。二つ目は、品詞別の習得様相をみると、い形容詞の正答率が一番高く、次いで動詞、な形容詞、名詞順に正答率が高かった。つまり、名詞の習得が一番難しいと言える。三つ目は、語種別の習得様相をみると、名詞は外来語の正答率をもっとも高く、固有語、漢字語、混種語順に正答率が高かった。つまり、混種語の習得が一番難しいと言える。一方、な形容詞は外来語、漢字語、固有語順に正答率が高く、固有語の習得が一番難しいと言える。以上、考察したように韓国語学習者のビジネス関連語彙の習得は日本語学習が進んでいてもあまり習得されていないので日本をはじめとする海外への就職などが増えていく現況で求められている日本のビジネス関連語彙の学習が必須であると考ええる。

A study of the acquisition of Japanese business-related vocabulary
-by Korean learners of Japanese-

Kim, Sun-Young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examined how Korean learners acquire Japanese business-related vocabulary by evaluating their learning levels.

First, business vocabulary is gradually acquired as the Korean learner's level increases. However, the intensive learning of business-related vocabulary is thought necessary because the total vocabulary of the learner is low. Second, in terms of parts of speech, adjectives are acquired most correctly, followed by verbs, adjectives, and nouns. Third, among foreign words, nouns are acquired most correctly, and it is difficult to acquire foreign words in the following order—Korean, Chinese characters, and mixed words. On the other hand, adjectives are acquired correctly in the following order—foreign words, and Chinese characters.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Japanese business vocabulary is inadequate in the normal course of Japanese learning, which presents an urgent problem given the increas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 Japan and the consequent need to acquire Japanese business-related vocabulary.